

“나와 비슷한 이두나 연기하며 쾌감 느껴”



톱스타에서 돌연 은퇴한 아이돌 역
젊은 캐릭터에 마음 끌려 출연 결심
일이 전부가 되는 삶 재미 없어
항상 은퇴 염두하며 매순간 최선

넷플릭스 시리즈 '이두나' 주연 수지

“대본을 봤을 때 한 대 언어맞은 듯 ‘어떻게 이렇게 나랑 비슷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6살에 아이돌로 데뷔해 줄곧 대중의 관심의 한 몸이 받아온 수지(사진). 그리고 최정삼급 인기를 누리다가 돌연 은퇴를 선언한 아이돌 이두나. 둘은 다른 듯 묘하게 닮았다.
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시리즈 '이두나'에서 이두나를 연기한 수지는 자신과 닮은 캐릭터에 자꾸만 마음이 쓰여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종로구 삼정동 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수지는 “이두나는 감정 기복이 워낙 심하다 보니 쉽게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두나가 잘 이해됐다”고 했다.
눈에 띄는 외모와 특출난 실력으로 톱 아이돌이 된 이두나는 흔한 로맨스물 속 사랑스러운 여자 주인공이 아니다.
극 초반에는 시종일관 입에 담배를 물고 있고, 험한 욕도 자주 쓴다. 화가 나면 술병을 집어 들고

덤비기도 한다.
수지는 “두나를 연기할 때 스스로를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크게 욕을 한다거나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 없이 구는 연기가 너무 재밌었다”며 “쾌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웃어 보였다.
“이런 두나가 미워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을 털어내고, 두나의 제멋대로인 성격을 조금 더 극명하게 표현해내는데 신경 썼죠. 초반에는 두나를 오해할 수 있지만, 점차 두나를 ‘아이돌 이두나’가 아닌 ‘사람 이두나’로 바꾸기를 바랐어요.”
자취를 감춘 채 대학가 셰어하우스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던 두나는 평범한 대학생 원준(양세종)을 만난다. 수지는 “두나는 본인의 마음을 자각하는데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고, 대사에 나와 있듯이 다 읽고 나서야 알아차리는 사람”이라며 “처음

부터 원준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첫사랑 P를 만나고 나서야 자기 마음에 확신을 얻게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두나를 연기하면서 수지는 데뷔 초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됐다고 한다. 그는 “두나는 황금 같은 시간을 일만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른다”며 “제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게 가수로서 배우로서 쉴 틈 없이 달려와 어 느덧 데뷔 14년 차를 맞은 수지. 두나처럼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항상 은퇴를 생각해요. 언제든 이 일을 그만둘 수 있고,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극 중 ‘노래도, 춤도 못 하게 되면 인생 정말 재미없겠다’는 두나의 대사처럼, 일이 내 전부가 되는 건 싫거든요.” /연합뉴스

전설의 언니들 ‘골든걸스’로 뭉쳤다

KBS2 금요 예능... '가수 경력 평균 38년' 인순이 등 그룹 결성



왼쪽부터 가수 인순이, 박미경, 신효범, 이은미와 프로듀서 박진영.

가수 인순이와 박미경, 신효범, 이은미. 가수 경력 평균 38년, 포함 151년에 달하는 한국 가요계의 전설적인 디바 네 사람이 그룹 ‘골든걸스’로 뭉쳤다.
KBS 2TV는 2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개성 강한 네 명의 디바가 걸그룹 ‘골든걸스’를 결성하는 과정을 담은 동명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그들의 최고참인 인순이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KBS 웨딩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를 통해 “나이를 먹는다는 건 용기를 내려놓는 거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골든걸스’의 결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의

CCO(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네 가수가 박진영의 제안을 받아들여 추진될 수 있었다고 한다.
박진영은 “이 곡은 이 누나들이 아니면 못 하는 음악”이라며 “이분들을 섭외하기 전부터 어떤 음악과 어떤 무대를 만들고 싶은지 정확한 생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이런 분들을 모아서 대체 뭘 한 거냐고 욕을 듣기에 딱 좋은 기획’이라며 “그만한 자신이 없었으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의 팬들에게도 K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K팝 아이돌 음악이 있을 수 있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K팝, 글로벌 스트리밍 42% ‘쑥~’

日·美·인니·한국 순... 뉴진스는 아시아·BTS는 북남미 비중 높아

전 세계에 부는 K팝 바람으로 올해 우리나라 가수들의 글로벌 스트리밍이 작년보다 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미국 음악 시장 분석 업체 루미네이트의 주간 보고서 ‘투즈데이 테이크어웨이’(Tuesday Takeaway)에 따르면 이달 5일 현재 상위 100개 K팝 가수(팀)들의 올해 누적 주문형(On-Demand) 오디오·비디오 스트리밍은 904억건에 달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2% 증가한 수치다.
루미네이트는 미국 빌보드 차트에 각종 음악 관련 판매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업체로, 이곳에서 성장세를 증명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K팝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97억건으로 K팝을 가장 많이 듣는 국가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92억건)·인도네시아(74억건)·한국(73억건)·인도(62억건)·필리핀(42억건)·멕시코(35억건) 순이었다.
루미네이트는 “베트남과 홍콩에서의 K팝 스트리밍 횟수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59%와 60% 증

가해 인상적인 성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K팝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일본에서 우리나라 가수들의 인기는 Z세대(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출생) 여성이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루미네이트는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일본 Z세대 여성의 39%가 K팝을 듣고, 일반적인 일본인보다 K팝을 들을 가능성이 105% 높았다”고 소개했다.
루미네이트는 특히 방탄소년단(BTS), 트와이스,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 뉴진스 같은 이른바 ‘톱 5’ K팝 그룹의 지역별 스트리밍 데이터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다섯 그룹 모두 아시아 비중이 컸지만, 그 의존도는 그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뉴진스는 스트리밍 가운데 아시아가 67.6%를 차지했고, 북미(미국·캐나다) 14.4%·라틴 아메리카 9.0%·유럽 7.2% 순이었다. 트와이스와 블랙핑크 역시 아시아가 각각 59.6%·58.7%로 나타나 절반을 넘겼다.
방탄소년단은 라틴 아메리카 20.2%·북미 14.7%로 미주 비중이 34.9%에 달했다. 스트레이 키즈 역시 라틴 아메리카 16.3%·북미 20.9%로 미주 비중이 37.2%였다. /연합뉴스

이현욱·차주영, 사극 호흡

tvN ‘원경’ 이방원·원경왕후 역
배우 이현욱과 차주영이 내년에 공개될 새 사극 드라마 ‘원경’에서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부부로 호흡을 맞춘다.
tvN과 티빙은 드라마 ‘원경’의 제작을 확정하고 원경왕후 민씨 역할에 차주영을, 이방원 역할에 이현욱을 각각 캐스팅했다고 26일 밝혔다.
‘원경’은 조선 초기 남편 이방원을 제3대 왕이 되도록 조력한 ‘킹메이커’ 원경왕후의 인생을 조

명한 드라마다.
차주영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고교생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였던 스튜어디스 최혜정 역할을 맡아 인물의 개성을 살린 호연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현욱은 연극과 영화, 드라마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OCN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에서 악역 유기혁 연기로 호평받았고 최근에는 넷플릭스 ‘도적’에서 친일파 이광일을 연기했다.
‘원경’은 내년 tvN과 티빙을 통해 공개될 예정



이현욱 차주영
이다. 구체적인 공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대연건설

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인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사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유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골짜배기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개 1000원, 옛날함도그1개 1000원
치즈함도그1개 1500원, 참살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경주은행 산수동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임,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유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박당화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남화·여화창 굽깔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것있는 스타일의 가물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월청담빌딩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도명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적성, 출생,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림로 251
한정식, 고동어구이, 주물럭, 찜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